

##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가족 수업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효과: 중학교 기술·가정 ‘관계’와 ‘안전’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주현정\* · 최새은\*\*1)

\*다정중학교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

### The Effects of Storytelling Family Classes Using Picture Books on the Resilience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of Adolescents: Focusing on the Core Concepts of ‘Relationship’ and ‘Safety’ in Middle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Joo, Hyunjung\* · Choi, Saeun\*\*1)

*\*Teacher, Dajeong Middle School*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torytelling lessons using picture books on the resilience of adolescents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s in the family unit of home economics subject in middle school. For this purpose, I selected picture books of five themes on family type, family relationship, family conflict, sexual violence, domestic violence, and family loss, and developed a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 for ‘Family class with picture book’ using storytelling elements and techniques. The teaching-learning plan was applied to 194 middle school students in technology · home economics classes, and the learning effect was evaluated by comparing pre- and post-tests. As a result, the resilience level perceived by adolescent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class, but no significant effect was found on self-expansion, which is a sub-factor of sociality. In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of adolescents, the effect of instruction was shown in all areas, and the affectional bonds felt in the relationship with mother than with father showed higher increase. In the family unit of home economics, storytelling lesson through picture book seems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adolescents in their relationship with the family by bringing up the potential power in them to stand against the adversities they may face.

Key words: 그림책(picture books), 부모자녀관계(parent-child relationship), 스토리텔링(storytelling), 회복탄력성(resilience)

---

1) 교신저자: Choi, Saeun,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ey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bu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8173, Republic of Korea

Tel: +82-43-230-3734, Fax: +82-43-231-4087, E-mail: Saeun@knue.ac.kr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I. 서론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나아가는 과도기이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 뿐만 아니라 정서, 사회적으로도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다. 오늘날 청소년이 직면한 도전에는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추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발달 단계상 도전들도 있지만, 이전 세대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심각한 도전들도 많이 있다. 현재 상당수의 청소년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적에 대한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관계에 대한 욕구로 SNS를 관리하며 인터넷 중독이나 부정적인 또래 압력 등의 위험 상황을 겪기도 한다(Chu, 2014).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고유한 발달상의 문제와 오늘날의 복잡한 관계 문제는 청소년의 강한 충동성에 의해 심각한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을 둘러싼 위기 상황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예방과 주의가 필요하다.

모든 청소년이 위기를 부정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에게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자신의 삶에서 겪는 역경과 어려움에 대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잠재적인 강인한 힘을 말한다(Kim, 2011). 회복탄력성은 자기조절능력인 통제성, 대인관계능력과 관련한 사회성, 긍정적 정서를 강화하는 긍정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의 회복탄력성이 모여 가족의 회복탄력성으로 연계되고 이는 가족 문제를 그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내며 더욱 소속감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이란 개인이 가진 결함과 약점보다는 능력과 자원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K. Kim, 2014). 회복탄력성에 관한 연구(Werner & Smith, 1982)는 하와이 카우아이섬에서 태어난 부모의 양육 환경이 특히 열악한 아이들이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된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연구를 통해 사람마다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다르게 지니고 있고 그것을 회복탄력성이라고 하였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성장해나가는 힘을 발휘한 아이들이 예외 없이 지니고 있던 공통점은 그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인생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있었다는 것. 즉, 회복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가족관계와 인간관계였다. 이를 통해 아이는 자신에 대한 사랑과 자아존중심을 길러가며 나아가 타인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을 키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회복탄력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은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스스로의 노력과 훈련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혀졌다(Kim, 2011). 이에 따라 자아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청소년기에 삶에서의 도전과 역경에 대해 사고하는 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더욱 회복탄력적이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지도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족 문제와 관련한 회복탄력성은 중등 교과 중에서도 가정과에서 유일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실과(기술·가정) 교과 가정생활 분야 중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에서 ‘안전’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중학교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과 고등학교의 ‘가족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내용 요소가 신설되어 보다 명료하게 제시되고 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단위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사회·구조적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고,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대처와 지원 방안을 탐색하며, ‘가족의 치유와 회복’ 단위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가족 문제의 종류와 영향을 분석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하기 위한 치유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Ministry of Education[MOE], 2015). 이러한 교과의 내용 요소와 목표는 가족의 안전한 삶을 위한 능력과 건강한 가족의 회복과 관련한 가족 치유의 필요성이 강조된 것으로, 구체적으로 가족구성원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단원에서 다루야 할 가족 문제로 가족의 죽음, 가족원의 우울증, 가족 해체, 신체적·정신적 장애, 외상 후 장애 등이 언급되고 있다(MOE, 2015). 이러한 가족 문제들은 감정 조절이 불안한 청소년기에 자신과 가족 이야기를 드러내어 사례 중심으로 말하기에는 어려운 주제이다. 또한 ‘가정생활과 안전’ 영역에 해당하는 가족 단위 수업의 교수·학습 방법으로 사례 탐구, 시뮬레이션, 훈련이 수업 중에 함께 이루어지도록 지도방법이 기술되어 있으나, 수업에서 예민한 가족 문

제를 해당 지도방법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족 단위 수업의 성취기준이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가족과 이웃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실제 사례보다는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보고 이야기에 공감하며 이를 중심으로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수업 방식이 적합할 것이다.

스토리텔링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비판적 능력을 키워주며 감성적 성장 등을 돕는 광범위한 교육적 가치를 지닌다. 이야기를 통해 감성적·사회적 공유를 하게 하여 타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J. Kim, 2014). 또한 이야기의 행동과 사건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이 가진 인지구조와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해나가는 교수·학습 기법이라 할 수 있다(Kang, 2012). 그리고 이 중 그림으로 접할 수 있는 동화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 중 하나이며, 그림책을 읽는 동안 문학작품 속의 주인공에 동화되어 상상력, 사고력, 창의력, 언어능력 및 심미적 감상력을 길러주며 그 느낌이나 판단에 공감하면서 삶을 배우고 경험을 확대해 나가게 한다(Jung & Chi, 2015). 이는 그림책을 통해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추측해 보는 과정에서 공감능력이 증진되는 것이다(Lee, Kang, & Nam, 2010; Seo, Seon, & Park, 2014). 따라서 청소년 대상의 가족 단위 수업에 그림책을 적용하여 가족 문제를 간접적으로 다룬다면, 자신의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고 청소년기의 부모자녀관계 향상에도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에서 가족 단원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와 '안전'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가족 관련 그림책을 선정하여 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적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그림책을 활용한 가족 수업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관계'와 '안전'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가족 단원에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하여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한다.

둘째, 수업 적용 후,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

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

## II. 선행연구 고찰

### 1.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에 관한 선행연구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은 주로 유아와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수업을 통한 개인 수준의 자아존중감(Kim, 2011; Song, 2005), 자아탄력성(Gu, 2010; Park, 2014; Yu, 2014), 학교적응유연성(Yu, 2016) 등의 향상 효과를 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연구는 Kim(2017)의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독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부적응 학생의 학교적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학교생활 적응능력 중 교사와의 관계, 교우 관계, 학교규칙,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Park(2013)도 학교 부적응 학생에 관심을 가지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교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문제가 있거나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한 학생을 대상으로 중재나 치료를 하려는 목적의 연구가 이루어진 경향이 있으나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이 활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인지적 사고, 태도, 가치관 형성의 긍정적인 향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사후 해결이나 치료의 성격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어렵거나 취약한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이겨내는 역량을 키우는 예방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예민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내밀하고 고유한 특성을 가지는 가족에 관한 이해와 소통을 다루고자 한다면 스토리텔링 기법의 그림책 사용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청소년들 자신의 가족에만 한정된 경험에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 편견 없는 시각으로 가족을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유아나 초등학교생들이 많이 본다고 여

겨지는 그림책을 활용함으로써 상상력과 간접 경험을 통한 공감 능력의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 2.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프로그램에 관한 선행연구

회복탄력성 교육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아, 초등 시기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교과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회복탄력성 연구는 청소년 축구선수들의 회복탄력성(Yoon, 2018),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한 청소년의 공감 능력과 회복탄력성이 폭력 태도와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Kim(2015)의 연구와 같은 체육 활동과 개인의 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이거나, 노래 중심 음악치료가 저소득층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Park & Moon, 2016)와 인터넷 중독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음악치료 활동이 미치는 효과(Yeu, 2012),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성폭력 피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효과(Choi & Park, 2017)와 같은 치료적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교과와 관련하지 않은 해결중심자기성찰 집단상담이 청소년의 자기성찰과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Oh, 2015),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중독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회복탄력성의 요인에 관한 연구(Shin, Choi, & Kim, 2009),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 주관적 웰빙, 행복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역할을 알아본 Seo(2016)의 연구, 청소년의 자살 생각에 관해 자존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 효과를 알아본 Yeo와 Park(2013)의 연구 등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내적 요인과 문제 행동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중등 교과 관련 연구는 영어 교과에서 중·고등학생의 영어 학습 동기 감소의 극복과정을 회복탄력성 관점으로 살펴본 Lee와 Kim(2014)의 연구와 도덕 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지도방법을 제안한 Chu(2014)의 연구가 유일하다. Chu(2014)는 회복탄력성의 역할모델 활용하기, 강점과 약점 확인하기, ABCDE 접근법 등 다양한 도덕과 지도방법을 제안했다.

기술·가정 교과에서 회복탄력성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하는 개념으로 교과와 관련한 회복탄력성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치유 교육에 대한 실천적 문제 중심 프

그램과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한 Yoon(2018)의 연구가 유일하다. Yoon(2018)는 교육과정상의 ‘안전’을 치유의 상위 개념으로 보고 치유를 통해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치유를 개념으로 다루기보다 지속적으로 청소년의 현재와 미래 생활에서 다루어야 할 항구적 본질의 실천적 문제로 보고 중학교 1~3학년을 학습대상자로 설정하여 총 12차시의 실천적 문제 중심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이에 가족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가정과교육 교과 차원에서의 연구범위 확대를 위해 개인 수준뿐 아니라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보호요인 중에서 회복탄력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가족 수준에 초점을 두어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뿐 아니라 가정과교육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 적용의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요구된다.

## 3.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발달 과도기에 놓인 청소년에게 개인·가족·사회의 연결 고리 중추에 있는 가정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에서 가정은 가장 근접 환경으로, 특히 가족은 청소년의 성장과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근본적인 사회적 환경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Lee, 2005). 또한 가정은 청소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겪는 스트레스로부터 가족이 함께 회복하고 치유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이루는 터전이 되기도 한다(Yoon, 2018).

가정 환경에서 부모자녀관계는 한 개인이 경험하는 최초의 관계이면서 개인이 성장하면서 발달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다.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심리·사회적 적응양식을 습득하게 되고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경험한 상호관계의 질은 자녀의 성격발달과 지적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공 여부와도 관련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Lee, 2014).

이러한 여러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청소년 발달을

바라보는 생태학적인 접근을 기반으로 정규 교육과정인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가족 수업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청소년 가정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주어 가족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된다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에 있어서 가정과 교육의 중요성과 부모자녀관계 향상에 있어서 가족 단위 수업의 당위성이 검증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방법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교수·학습 과정안의 수업 설계는 분석(Analysis), 설계(Design), 개발(Development), 실행(Implementation), 평가(Evaluation)의 5단계로 이루어진 ADDIE 모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 1. 분석

분석 단계에서는 학습과 관련된 요인들을 분석하여 학습 내용을 정의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가족 수업을 위하여 그림책과 스토리텔링,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문헌 조사, 선행연구 고찰과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가족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 단원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의 학습 주제를 선정하고, 학습주제별 성취기준과 학습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학습 내용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 2. 설계

설계 단계는 분석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종합하여 교수·학습 과정의 전체적인 구조를 조직하고 교수·학습 내용을

구성하였다. 또한 교수·학습 자료의 선정을 위해 수업 방법으로 스토리텔링과 교수 매체로 그림책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수업전략을 설계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그림책 선정을 위한 예비 조사를 실시하고,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가족 단위 스토리텔링 수업에 대한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 결과가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에 반영되도록 설계하였다.

#### 가. 그림책 선정

이 연구에서 사용된 그림책은 다음의 5단계 절차를 거쳐 선정하였다. 1단계에서는 가족 형태와 가족관계, 가족갈등, 가족 상실 주제 관련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그림책 891권의 목록을 확보하였다(Kim, 2003; Kim, 2013; Lee, 2008; Park, 2012; Park, 2010; Rho & Kim, 2013; Shin & Cho, 2009; Shin, 2007). 2단계에서는 이들 선행연구에서 분석기준으로 삼은 가족 형태인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이혼가족, 비동거가족, 맞벌이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장애가족, 고아 등으로 나누어 공통적으로 선정된 31권의 그림책을 추출하였고, 이 중 절판된 4권의 책은 제외하여 27권을 선정하였다. 3단계에서는 가족 그림책 관련 최신 선행연구가 2013년이므로, 이후 발간된 가족 주제 관련 그림책을 대표적인 아동도서 인터넷 서점(오픈키드; [www.openkid.co.kr](http://www.openkid.co.kr))과 어린이 도서관에서 신간 도서를 검색하여 추가하였다. 그림책의 기피 주제인 성, 폭력, 죽음을 다루는 그림책은 아동 대상 그림책으로 권수 자체가 드물 뿐 아니라 관련 선행연구도 전무하여 어린이 도서관과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하여 가족 상실, 성폭력, 가정폭력 주제 관련 그림책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앞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선정된 그림책 목록과 함께 수업에 활용할 총 41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4단계에서는 학습 주제별로 그림책을 분류하였다. 가족 형태에는 재혼가족, 노인가족, 장애가족, 입양가족, 다문화가족에 관한 그림책을 포함하고, 가족갈등 주제에는 이혼가족과 맞벌이가족에 관한 그림책을 분류하였다. 가족 상실 주제에는 조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 고아에 관한 그림책으로 구성하여 가족 형태, 가족갈등, 가족 상실, 성폭력, 가정폭력으로 분류하였다. 5단계에서는 가정교육과 교수 1명, 가정교육전공 박사과정 가정과교사 2인, 석사과정

가정과교사 2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를 통해 그림책 선정에 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각각 41권의 그림책을 평가하여 학습주제별 그림책 분류와 중학교 기술·가정 가족 단위 수업의 예비 조사에 활용할 총 30권의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그림책 선정을 위한 학생 대상 예비조사는 2018년 7월 12일부터 17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A중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고자 한 3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기술·가정 시간에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선택된 그림책의 심사 평가표를 합산하여 순위를 선정하였다. 전문가 대상 예비조사는 2018년 8월 10일 가정교육과 교수 1명, 가정과교사 가정교육전공 박사과정 2인, 석사과정 2인이 모여 수업 방법, 주제별 그림책 분류, 그림책 선정 평가 기준에 관해 협의 후 학습주제별로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학생과 전문가에게 실시한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순위가 가장 높게 나온 그림책을 2-5차시 주제별로 한 권씩 선정하고, 1차시에 해당하는 다양한 가족 유형을 담은 그림책은 학생 대상으로 선택된 그림책과 연구자가 가족 유형이 겹치지 않게 선행연구와 신간 도서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7권으로 구성하였다. 차시별로 최종 선정된 그림책은 <Table 1>과 같고, ‘그림책과 만나는 가족’ 수업에서 교수·학습 매체로 활용될 그림책은 총 11권이다.

나.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활용한 수업전략 설계

이 연구에서는 교수·학습 맥락에서 스토리텔링의 요소(페르소나, 감정이입, 비유, 플롯, 심미적 경험, 시간성)를 도출하여 교수설계 모형을 개발한 Park(2012)의 개념모형을 활용하였다. 스토리텔링의 요소를 활용한 교수설계 모형에서 스토리텔링 층위(storytelling layer)의 교수설계 원리 및 전략을 활용하여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습 내용 층위(content layer)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가정 가족 단위의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교수·학습 과정을 개발하였다.

수업의 전체적인 과정은 Kang(2012)의 스토리텔링 기법을 적용한 성교육 교수·학습 과정안에서 사용된 이야기의 흐름에 따른 도입-전개-중-확장-정리의 5단계 수업 과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야기 흐름 중 이야기 후(後)에 해당하는 수업 과정에서 교과서와 관련한 그림책 내용정리 후 이야기 활동 결과물에 해당하는 과제와 실천하고 적용하는 활동을 연결할 수 있게 순서를 바꾸어 도입-전개-중-정리-확장의 5단계 수업 과정으로 활용하였다.

Table 1. Picture book list by unit

차시	핵심 개념	내용 요소	학습 주제	그림책 명	저자		출판사	초판 연도
					글	그림		
1	관계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가정, 가족관계	가족 형태, 가족관계	특별한 가족	안나레나 맥아피	앤서니 브라운	배틀북	2017
				새로운 가족	전이수	전이수	엘리	2017
				위를 봐요	정진호	정진호	현암주니어	2014
				리디아의 정원	데이비드 스몰	사라 스투어트	시공주니어	1998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족	수사나 로페스	울리세스 웬셀	도미솔	2016
				이모의 결혼식	선현경	선현경	비룡소	2004
				우리 가족입니다	이혜란	이혜란	보림	2005
2	관계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가족갈등	따로따로 행복하게	배빗 콜	배빗 콜	보림	1999
3	안전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성폭력	나에게 일어난 일을 다 말할 거예요	아너미 베르브룩스	아너미 베르브룩스	뜨인돌 어린이	2012
4	안전		가정폭력	앵그리맨	그로 달레	스페인 니후스	내인생의 책	2014
5	안전	가족의 치유와 회복	가족 상실	무릎딱지	샤를로트 문드리크	올리비에 칼레크	한울림 어린이	2004

### 3. 개발

개발 단계에서는 수업의 흐름에 따라 설계된 매체와 교수·학습 자료를 순서대로 조직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차시별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수업을 디자인하였다. 이를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요구 조사를 토대로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교수·학습 과정안의 개발 준거를 마련하여 5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과 차시별 평가도구, 사전·사후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후 경력 10년차 이상의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가정교과사 1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수·학습 과정안과 학습자료 1차 타당성 검토 후 충청남도 논산시에 위치한 K중학교 2학년 전체 1학급 남녀학생 7명을 대상으로 2018년 10월 11일부터 11월 9일까지 5차시 수업 적용하는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예비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교수자 반응 평가와 학습자 반응평가를 분석하여 수정·보완하고, 교수·학습 과정안과 학습자료를 지도교수를 통해 2차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최종 교수·학습 과정안을 완성하였다.

### 4. 실행

실행 단계에서는 개발한 교수·학습 과정안을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두 학교에서 실행하였다. A중학교 2학년 전체 5학급 남녀학생 72명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16일부터 12월 3일까지 가정교육진흥금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교육경력 3개월의 신규교사가 수업을 실행하였고, B중학교 3학년 전체 5학급 남녀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연구자가 직접 수업을 실행하였다.

### 5. 평가

평가 단계는 학습자가 수업에 참여하면서 작성한 학습활동지와 차시별 수업 일기, 교수자의 수업 성찰일지를 통해 구체적인 수업에 대한 평가 자료를 수집하고,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수업 효과를 분석하였다. 회복탄력성은 Shin, Kim과 Kim(2009)이 청소년을 대

상으로 개발한 회복탄력성 척도 YKRQ-27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의 각 3가지 요인과 요인별로 각각 3문항씩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27문항이다. 응답방식은 ‘매우 그렇다(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확인을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회복탄력성 척도는 .92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정적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Roberts와 Bengtson(1993)이 개발한 Perceived Parent-Child Affe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 각 4문항씩 총 8문항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애정 정도가 ‘아주 조금’ 1점에서부터 ‘매우 많이’ 6점까지 체크하는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애정적 결속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93, 어머니와의 관계는 .89로 나타났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 가족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주제 다섯 가지를 선정하여 학습주제별 학습 목표를 선정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개념 중 ‘관계’와 ‘안전’에 해당하는 가족 단원의 내용 요소와 성취기준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2009 교육과정 가족 관련 단원의 내용인 가족 형태와 가족갈등의 학습 주제에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추가하고, 학습 내용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학습 주제에 해당하는 가족 상실을 추가하여 총 5차시의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였다. 해당 차시에서 다루는 가족 내용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가족 문제에 관한 학습 주제 대신에 그림책 제목을 학습 주제로 선정하여 수업의 시작부터 어려움보다는 호기심을 가지고 학습 주제를 학습자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무지갯빛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관

계를 담고 있는 7개의 그림책을 다루는 1차시 ‘무지개 가족’을 제외하고, 2차시 가족갈등에 관한 ‘따로따로 행복하게’, 3차시 성폭력에 관한 ‘나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할 거예요’, 4차시 가정폭력에 관한 ‘앵그리맨’, 5차시 가족 상실에 관한 ‘무릎 딱지’의 그림책 제목을 하위 주제로 하여 총 5차시의 수업을 구성하였다.

1차시 ‘무지개 가족’은 재혼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손님’과 입양 가족인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족’, 치매에 걸린 할머니의 내용을 담은 ‘우리 가족입니다’와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된 가족원의 이야기인 ‘위를 봐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내용의 ‘새로운 가족’, 다문화가족의 이야기를 표현한 ‘이모의 결혼식’, 떨어져 사는 분거가족의 내용을 담은 ‘리디아의 정원’의 7가지 그림책으로 구성하였다. 가족 내용은 다양한 가족 형태이나 애정과 사랑이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의미를 구성하고 가족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연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형태의 유형과 특징,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의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교수·학습 내용으로 선정하여 가족 형태와 가족관계를 함께 다루는 내용으로 차시를 구성하였다. ‘우리는 모두 가족’이라는 전이수 작가의 그림에 비유하여 오늘 배울 가족 관련 이야기를 추측해 보고, 가족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 생각의 폭을 넓혀볼 수 있도록 하였다. 재혼 가족, 입양 가족, 장애 가족, 다문화가족, 분거가족, 3세대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을 페르소나의 스토리텔링 요소를 활용하

여 그림책 속 가족원의 관점과 입장에서 상황이나 사건을 이해하고, 이야기 속 캐릭터의 성격으로 성찰하고 행동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책 속의 주인공 가족이 되어’ 활동을 통해 가족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모듈별로 인터뷰, 역할극, 뉴스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 방법을 선택하여 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내 가족의 가계도, 애정 지도 작성은 그림책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자신의 상황을 적용해보는 감정 이입과 관련된 스토리텔링 요소와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글을 써보는 수업 일기 작성은 심미적 경험의 스토리텔링 요소를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은 <Table 2>와 같다.

2차시는 <Table 3>과 같이 가족갈등 주제에 해당하는 ‘따로따로 행복하게’ 그림책으로 부부갈등에 대해 자녀들이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제시하는 이혼가정의 이야기이다. 가족갈등은 갈등이 생겼을 때 잘 대처하여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며,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 배경과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모듈 활동으로 1단계 갈등상황 수용하기, 2단계 의사소통으로 해결 방안 탐색하기, 3단계 최선의 방법 선택하여 실천하기로 구성된 가족갈등 해결과정 3단계를 거치며 이야기 속 가족의 내용을 정리하고, 플롯의 스토리텔링 요소를 적용하여 그림책과 관련된 가족갈등 사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족 내 두 사람 이상의 구성원들이 목표와 이해가 서로 달라 관계가 좋지 않

Table 2. Teaching-learning plan #1

가족내용	가족 형태 가족관계		
학습주제	무지개 가족		
학습목표	1. 다양한 가족 형태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2.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지도단계	교수·학습 활동	스토리텔링 요소	스토리텔링 기법
도입	○ ‘우리는 모두 가족’ 그림 탐색	비유	· 그림을 보고 가족관련 주제 이야기 추측하기
전개 집중	○ 그림책 읽고 다양한 가족 형태 이해하기 · 그림책 속 가족원의 특징과 애정지도 그리기 ○ 그림책 속의 주인공 가족이 되어 · 가족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소개하기	페르소나	· 등장인물의 관점, 입장에서 상황이나 사건 이해하기 · 이야기 속 캐릭터의 성격으로 성찰·행동하기
		플롯	· 그림책 가족원의 문제, 갈등 등을 가족원 특징과 관계도로 제시하여 이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전환하기
정리 확장	○ 나의 가족 가계도, 애정지도 그리기	심미적경험	· 학습내용을 도표로 표현하기 · 학습내용을 패러디로 제시하기
		감정이입	· 그림책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자신의 상황 적용해보기
		심미적경험	·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글쓰기



은 상태인 가족갈등의 정의를 내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잘 대처하여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플롯의 요소를 적용한 주어진 가족갈등 과제를 탐색하여 결과를 공유하는 기법에 해당하는 모둠 활동 결과물로서 ‘드미트리어스(또는 폴라)의 새 케이크’란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는 표지에서 제시된 주인공의 잘라진 케이크가 아닌 가족갈등 해결과정 3단계에서 모듬별로 이끌어낸 최선의 방법으로 그림책의 표지와 제목을 새롭게 구성하는 활동으로, 이때 그림책에 나와 있는 끝흔식 방법 외에 가족갈등의 다른 해결방법들을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아지를 찾아라’라는 활동은 두 마리로 시작하여 본문에서는 각각 한 마리로 등장하다 마지막에 음식쓰레기를 먹고 있는 끝그림을 통해 강아지가 의미하는 바가 가족원이며, 가족갈등은 당사자의 갈등으로만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원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족원 모두 함께 갈등 해결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차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말할 거예요’는 <Table 4>와 같이 성폭력 주제에 해당하는 그림책이다. 까마귀와 어린 새에 빗대어 간접적으로 아동 성폭력 내용을 담고 있어 성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문제해결방안을 직접 탐색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내용은 성적 의사결정, 성폭력

원인과 영향, 성폭력 예방 및 대처 방안으로 하였다. 책의 표지와 제목을 탐색하며 성폭력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어린 새에 비유한 것으로 그림책에 등장하는 모든 동물의 특성을 파악해보며 그림책을 읽도록 하였다. ‘만약 어린 새가 이렇게 했다면’ 활동으로 플롯과 심미적 경험, 시간성의 스토리텔링 요소를 적용하여 성폭력 사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고 미래 시점의 결과를 추론하여 새로운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으로 표현해보는 모듬 활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활동에서는 자신 의지와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성적 의사결정을 할 권리인 성적 자기 결정권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린 새의 성적 의사결정이 드러난 대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까마귀는 어린 새에게 엄청난 비밀을 남기고 떠났어요’ 문장 이후로 성적 자기 결정권이 드러나게 뒷이야기를 4컷 그림으로 새롭게 구성하여 전체적으로 공유한 후 모듬별로 발표한 결과가 성폭력의 예방 및 대처 방안으로서 적합한지 평가해보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방안의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성폭력의 대처 방안은 자신만의 해결이 아닌, 어린 새의 엄마, 아빠, 고양이와 같은 등장인물과 관련하여 가족원의 도움과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 새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라는 과제를 제시하며 페르소나와 심미적 경험의 스토리텔링 요소

Table 3. Teaching-learning plan #2

가족내용	가족갈등		
학습주제	따로따로 행복하게		
학습목표	1.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분석할 수 있다. 2. 가족 간의 갈등 해결 방안을 탐색하여 실천할 수 있다.		
지도단계	교수·학습 활동	스토리텔링 요소	스토리텔링 기법
도입	○ 그림책의 표지 탐색	비유	· 책 표지를 보고 가족관련 주제 이야기 추측하기
전개 집중	○ 그림책 읽고 내용과 인상 깊은 장면 이야기 나누기	페르소나	· 등장인물의 관점, 입장에서 상황이나 사건 이해하기
	○ 가족 갈등 해결과정 3단계로 이야기 속 가족의 내용 정리하기	감정이입	· 그림책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자신의 상황 적용해보기 · 가족 갈등을 자신의 실제 경험과 감정을 담은 사례로 연결하기
	○ 드미트리어스(또는 폴라)의 새 케이크 · 가족 갈등 해결과정 3단계에서 작성한 최선의 방법으로 그림책의 표지와 제목 구성하기	플롯 심미적 경험	· 그림책과 관련된 가족 갈등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해보기 · 주어진 갈등 과제를 탐색하여 결과 공유하기 · 학습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정리 확장	○ 강아지를 찾아라	페르소나	· 이야기 속 캐릭터의 성격으로 성찰-행동하기
	· 강아지가 그림책 본문에서 등장하는 횟수와 모습을 살펴보고, 의미하는 바를 작성하기	비유	· 상상이나 연상의 단초 제공하기

Table 4. Teaching-learning plan #3

<b>가족내용</b>	성폭력		
<b>학습주제</b>	나에게 일어난 일을 모두 말할 거예요		
<b>학습목표</b>	1. 성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2. 성폭력의 예방 및 대처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b>지도단계</b>	<b>교수·학습 활동</b>	<b>스토리텔링 요소</b>	<b>스토리텔링 기법</b>
도입	○ 그림책의 표지 탐색	비유	· 책 표지를 보고 가족관련 주제 이야기 추측하기
전개 집중	○ 그림책 읽고 내용과 인상 깊은 장면 이야기 나누기 ○ ‘만약 어린새가 이렇게 했다면’ · 그림책의 결말 바꾸어 나만의 그림책으로 구성하기	페르소나	· 등장인물의 관점, 입장에서 상황이나 사건 이해하기
		감정이입	· 갈등, 공포 등을 활용, 위기감을 제시하여 몰입 유도
		플롯	· 성폭력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해보기
		심미적경험	· 나만의 그림책으로 표현하기
		시간성	· 미래 시점의 결과를 추론하기
정리 확장	○ 어린 새에게 이렇게 말해 주세요 · 어린 새 주변인물로 가정하고 어린 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쪽지로 보내기	페르소나	· 등장인물의 관점, 입장에서 상황이나 사건 이해하기
		심미적경험	·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글쓰기

Table 5. Teaching-learning plan #4

<b>가족내용</b>	가정폭력		
<b>학습주제</b>	앵그리맨		
<b>학습목표</b>	1. 가정폭력의 사회·구조적인 원인과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2. 가정폭력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대처 및 지원 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b>지도단계</b>	<b>교수·학습 활동</b>	<b>스토리텔링 요소</b>	<b>스토리텔링 기법</b>
도입	○ 그림책의 표지 탐색	비유	· 책 표지를 보고 가족 관련 주제 이야기 추측하기
전개 집중	○ 그림책 읽고 내용과 인상 깊은 장면 이야기나누기 ○ 내가 보이려면!! · 그림책의 가상인물 임금을 현실 인물로 설정하여 이후 이어질 뒷이야기 작성하기	페르소나	· 등장인물의 관점, 입장에서 상황이나 사건 이해하기
		감정이입	· 등장인물의 서스펜스, 위기 의식, 감정 등을 투사하기
		플롯	· 가정폭력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해보기
		심미적경험	· 학습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 상관관계에 있는 두 조건을 조작하여 그 결과 탐색하기
		시간성	· 과거, 현재, 미래 시간과 연결하여 맥락을 가정하기
정리 확장	○ 내가 옆집에 사는 아줌마라면 · 보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전할 말과 행동을 작성하기	페르소나	· 이야기 속 캐릭터의 성격으로 성찰-행동하기
		심미적경험	·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글쓰기

를 적용하여 어린 새의 주변 인물을 가정하여 어린 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쪽지로 작성하며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글쓰기의 스토리텔링 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4차시는 <Table 5>와 같이 가정폭력 주제에 해당하는 ‘앵그리맨’ 그림책으로, 가정폭력의 원인과 영향, 가정폭력 대처 및 지원 방안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선정하였다. 학습자 관점에서 가정폭력의 사회 구조적인 원인과 영향을 생각해보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과 지원 방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책의 주인공인 보이와 엄마, 아빠가 느꼈을 다양한 감정 단어들을 중심으로 보이의 뇌 구조를 그려보도록 하여 가족에게 느낄 수 있는 양가감정을 이해하여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감정들을 탐색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가 보이려면!!’ 활동에서 플롯과 시간성, 심미적 경험의 스토리텔링 요소로, 그림책 속 임금님 대신 현실의 인물을 설정하여 뒷이야기를 작성해 보도록 하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둠별로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하는 핵심키워드 세

Table 6. Teaching-learning plan #5

<b>가족내용</b>	가족 상실		
<b>학습주제</b>	무릎딱지		
<b>학습목표</b>	1. 예기치 못한 가족 문제의 종류와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2.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하기 위한 치유방안을 탐색할 수 있다.		
<b>지도단계</b>	<b>교수·학습 활동</b>	<b>스토리텔링 요소</b>	<b>스토리텔링 기법</b>
도입	○ 그림책의 표지 탐색	비유	· 책 표지를 보고 가족관련 주제 이야기 추측하기
전개 집중	○ 그림책 읽고 내용과 인상 깊은 장면 이야기 나누기 ○ 나의 무릎딱지 · 그림책 속의 '나'의 상황을 분석하고 나의 가족문제를 무릎딱지 경험에 비유하여 작성하기	페르소나	· 등장인물의 관점, 입장에서 상황이나 사건 이해하기
		감정이입	· 등장인물의 서스펜스, 위기 의식, 감정 등을 투사하기
		플롯	· 가족상실 사례를 통해 문제해결해보기
		심미적 경험	· 학습내용이 제공하는 환경요소를 학습자 맥락에서 재창출하기
정리 확장	○ '나의 가족, 사랑할까요?'란 주제에 관한 성찰과 학습내용 가정에서 실천하기	비유	· 주요 학습 내용의 메시지를 함의하고 있는 대상이 연상될 수 있도록 시각화하기
		감정이입	· 주요 내용을 학습자의 실제 경험과 감정을 담은 사례로 연결하기
		심미적경험	· 학습내용이 제공하는 환경요소를 학습자 맥락에서 재창출하기

가지를 먼저 선정하고, 키워드가 드러나도록 4컷 그림을 그려 보며 가정폭력 상황에서의 그림책 속 아이의 자책, 아내의 참는 행동, 아빠의 후회가 아닌 주변의 도움으로 문제 행동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 방안과 지원 방안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가 옆집에 사는 아줌마라면' 활동을 통해 페르소나와 심미적 경험의 스토리텔링 요소를 적용하여 자신이 그림책 속의 등장인물 중 보이 옆집에 사는 아줌마라면, 보이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전할 말 또는 표현할 행동을 작성해 보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의 대처 및 지원 방안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관심, 공감, 위로와 같은 역할의 중요성과 그림책 속 보이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인물이 옆집 아줌마와 같은 주변인의 관심임을 깨닫도록 하였다.

5차시 '무릎 딱지'는 <Table 6>과 같이 가족 상실을 주제로 남은 가족원의 회복과 치유를 그리고 있는 그림책이다. 이 차시에서는 가족 문제의 종류와 영향,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하기 위한 치유방안을 교수·학습 내용으로 선정하여 예기치 못한 가족 문제의 영향과 무릎딱지에 비유한 회복과 치유과정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하기 위한 치유방안으로 건강가정과 회복탄력성의 의미를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자 그림책을 탐독한 후 페르소나와 감정이입의 스토리텔링 요소로 그림책 속 주인공 '나'의 감정 변화를 글자나 그림으로 표현해보고, '나'의 가족원

들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글귀를 찾아 써보며 등장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이해하고, 등장인물의 감정 등을 투사하는 기법을 적용하였다. 도둑 안에서 인상 깊은 장면을 나누며 가족에게 느끼는 '나'의 양가감정을 중심으로 가족원에게 미치는 예기치 못한 가족 문제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 주제는 가족 상실이나 죽음과 같은 영원한 상실과 함께 일시적인 상실(가족원의 가출, 독립 등), 모호한 상실(실종 등) 등 자신의 삶과 연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나의 무릎딱지'라는 활동은 예기치 못한 가족 문제의 발생을 무릎에 상처가 나는 1단계, 딱지가 앉고 떼어내기를 반복하는 과정을 치유과정 2단계, 딱지가 사라지는 것을 회복의 3단계로 설정하여 그림책 속의 '나'의 상황을 모듈별로 분석하도록 하였다. 1단계에서는 가족 문제의 유형과 가족이 느끼는 감정, 가족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도록 하고 2단계에서는 가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법과 주변의 도움에 집중해보며 3단계에서는 가족 문제가 언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분석하도록 하였다. 특히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갈 때 '나'의 입장을 무조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주변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 그림책 속 아빠와 할머니의 역할을 집중해서 다시 보고 회복탄력성의 핵심적인 요소인 가족관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적용 결과

### 가. 연구 대상자의 특성

이 연구의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A중학교 남녀학생 72명과 B중학교 남녀학생 122명으로 총 194명이다. 이 중 부실하게 응답한 3명을 제외하고 남학생 60명, 여학생 59명인 총 191명을 통계분석하였다. 부모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분하여 측정하였고, 아버지가 있는 경우 188명, 어머니가 있는 경우 189명이었다. 다만 부모와의 애정적 관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아버지처럼 느끼는 남성 어른, 어머니처럼 느끼는 여성 어른으로 가족의 의미를 확대하여 응답하도록 하여 실제 부모의 수와는 차이를 보였다. 아버지와와의 애정적 관계에 대해서는 190명, 어머니와의 애정적 관계에 대해서는 188명이 응답을 하였다. 또 가족구성원 중 같이 사는 가족원과 주로 대화하는 상대, 가장 친밀하다고 여기는 상대는 복수 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개인 배경 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은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인 187명(98.0%), 부모 모두 없는 경우는 1명(0.5%), 아버지만 있는 경우는 1명(0.5%), 어머니만 있는 경우는 2명(1.0%)이었다. 가정의 생활수준은 중간 정도라도 생각하는 학생이 85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중상 67명(35.1%), 상 28명(14.6%), 중하 11명(5.8%)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분위기는 대체로 화목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52.4%), 매우 화목하다 49명(25.7%), 보통이다 31명(16.2%), 대체로 화목하지 않다 9명(4.7%), 전혀 화목하지 않다 2명(1.0%)의 순이었다. 아버지의 연령은 46~50세에 82명이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43.6%), 다음으로는 41~45세 68명(36.7%), 51~55세 28명(14.9%), 36~40세 5명(2.7%), 56~60세 4명(2.1%) 순이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41~45세가 99명으로 가장 많았고(52.4%), 다음으로는 46~50세 63명(33.3%), 36~40세 14명(7.4%), 51~55세 8명(4.2%), 31~35세 3명(1.6%), 56~60세 2명(1.1%)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 응답으로 조사하였던 현

재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은 어머니(94.7%), 아버지(90.0%)가 가장 많았고, 가족 유형은 핵가족 분포가 대부분이었고, 확대 가족은 소수에 해당하였다. 가족 구성원 중 주로 대화하는 상대는 어머니(85.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아버지와 주로 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38.2%), 가장 친밀하다고 여기는 상대는 어머니(69.7%)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아버지로 나타났다(26.5%).

### 나. 회복탄력성 사전·사후 차이 분석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수업 적용 후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정도는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업 전 3.70에서 수업 후 3.86으로 증가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또한 자아확장력을 제외한 모든 하위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 그림책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교수·학습 방법으로 가족 단원을 수업한 것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가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Table 7>과 같이 회복탄력성의 3가지 하위영역별 향상을 살펴보면, 통제성은 3.58에서 3.78로 증가하였고( $t=4.40$ ,  $p<.001$ ), 사회성은 3.78에서 3.89로 상승하여( $t=3.33$ ,  $p<.01$ ) 수업 후 효과를 보였다. 긍정성은 3.73에서 3.97로 증가하여 3가지 하위 영역 중 수업 전후 통계적으로 가장 큰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t=4.99$ ,  $p<.001$ ).

회복탄력성의 하위 영역 중 통제성 영역에서는 충동억제력이 수업 후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t=4.38$ ,  $p<.001$ ), 원인분석력( $t=3.24$ ,  $p<.01$ )과 감정통제력( $t=3.21$ ,  $p<.01$ )도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다. 긍정성 영역에서는 자아낙관성( $t=5.00$ ,  $p<.001$ )과 생활만족도( $t=4.36$ ,  $p<.001$ ), 감사하기( $t=2.18$ ,  $p<.05$ )의 하위 요인에서 모두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사회성 영역에서는 소통능력( $t=3.60$ ,  $p<.001$ )과 공감능력( $t=2.16$ ,  $p<.05$ )에서 수업 후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지만, 자아확장력에서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회복탄력성 중 통제성 영역에서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억제력은 수업 전후로 상승하였다. 스토리텔링으로 진행

1) A중학교와 B중학교는 같은 통학군으로 인접해 있는 학교로서 수업실행 시기의 차이는 있었어도 가족 단원을 배우는 시기와 순서는 유사했다. 집단 간 동질성 검사 결과 A중학교와 B중학교 학생은 일반적 특성의 모든 하위 항목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사전검사의 회복탄력성, 부모자녀관계 점수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두 중학교의 연구대상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보고 함께 분석하였다.

Table 7. Pre-and post-test comparisons by resilience

(N=191)

Resilience		pre-test		post-test		paired-t
		M	SD	M	SD	
Controll ability (A)	Cause Analysis(A1)	3.77	.73	3.95	.68	3.24**
	Emotional Control(A2)	3.73	.69	3.91	.73	3.21**
	Impulse suppression(A3)	3.24	.68	3.48	.79	4.38***
	sub total(A)	3.58	.58	3.78	.65	4.40***
Positive (B)	Thank you(B1)	3.93	.78	4.06	.81	2.18*
	Life satisfaction(B2)	3.57	.89	3.87	.84	4.36***
	Self-optimism(B3)	3.69	.80	4.00	.71	5.00***
	sub total(B)	3.73	.68	3.97	.65	4.99***
Sociability (C)	Self-expansion(C1)	4.01	.88	4.09	.92	1.54
	Communication(C2)	3.53	.80	3.75	.75	3.60***
	Empathy(C3)	3.79	.72	3.91	.77	2.16*
	sub total(C)	3.78	.63	3.89	.62	3.33**
total		3.70	.53	3.86	.53	4.83***

\*p<.05 \*\*p<.01 \*\*\*p<.001

되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가족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며 가정생활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활동의 반복으로 자기조절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족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고 기분에 휩쓸리는 충동적 반응을 억제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대처 방안을 찾아내는 능력이 모두 향상되어 통제성에서 수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복탄력성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 중 긍정성에서는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자아낙관성의 모든 하위요인이 수업 전후로 상승하였다. 이는 그림책을 통한 가족에 대한 간접 경험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고, 가족들이 겪는 크고 작은 일상적인 문제들을 경험해보는 활동들이 긍정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스스로 낙관적인 생각을 하려 노력하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극복하려고 하는 자아낙관성과 자신의 이상적 삶의 모습과 현재 삶이 얼마나 유사한지 판단하는 생활 태도인 생활만족도, 삶에 감사하는 태도가 모두 향상되어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잠재적인 힘인 회복탄력성 중 긍정성에서 수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회복탄력성 중 사회성 영역에서는 3가지 하위요인 중 소통 능력과 공감능력에서 수업 후 유의미한 증가를 보였고, 자아 확장력에서는 수업 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수업을 통해 그림책의 가족에 대한 감정을 공유하며 타인의 심리와 감정 상태를 읽어낼 수 있는 공감 능력과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맺고 오래 유지하는 소통능력의 향상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성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측정 문항이 친구를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어 다른 사람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인 자아확장력까지 생각이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그림책을 통한 수업에서 가족에 관한 생각이 친구 관계까지 직접적으로 확장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 다. 부모자녀관계 사전·사후 차이 분석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수업 후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애정적 결속의 정도를 측정하고 사전·사후 차이를 분석하여 수업의 효과를 알아본 결과 <Table 8>과 <Table 9>에서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적인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간의 애정적 결속 정도는 6점 척도에서 수업 전 4.64에서 수업 후 5.08로( $t=6.62, p<.001$ ), 아버지와의 애정적 결속 정도는 수업 전 4.22에서 4.6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able 8. Pre-and post-test means by mother-child relationships (N=188)

Question	pre-test		post-test		paired-t
	M	SD	M	SD	
1. Considering everything, how close do you feel to your mother at this point in life?	5.00	.97	5.40	.81	5.97***
2. Overall, how well do you think your relationship with your mother is at this point in life?	4.92	1.04	5.28	.85	4.95***
3. How well do you feel your mother understands you?	4.34	1.32	4.93	1.16	6.17***
4. How well do students understand mother?	4.32	1.16	4.70	1.20	4.49***
total	4.64	.97	5.08	.88	6.62***

\*\*\*p<.001

Table 9. Pre-and post-test means by father-child relationships (N=190)

Question	pre-test		post-test		paired-t
	M	SD	M	SD	
1. Considering everything, how close do you feel to your father at this point in life?	4.47	1.11	4.85	1.16	4.90***
2. Overall, how well do you think your relationship with your father is at this point in life?	4.49	1.15	4.87	1.13	5.02***
3. How well do you feel your father understands you?	4.01	1.37	4.40	1.38	4.20***
4. How well do students understand father?	3.89	1.26	4.38	1.30	5.65***
total	4.22	1.07	4.63	1.13	5.95***

\*\*\*p<.001

( $t=5.95, p<.001$ ). 모든 하위 문항에서 수업 후 점수가 수업 전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가족 수업이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문항별로 보면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는 ‘어머니가 학생을 얼마나 잘 이해한다고 느끼니까?’의 문항에서( $t=6.17, p<.001$ ),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학생은 아버지를 얼마나 잘 이해합니까?’의 문항에서 사전·사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t=5.65, p<.001$ ). 이는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수업 후 가족에 관한 생각과 이해가 커지고,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가 증진되어 청소년 자신이 느끼는 부모와의 애정적 결속의 정도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모두 수업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관계향상 효과가 다소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로 대화하는 상대가 어머니였고, 가장 친밀하다고 여기는 상대에 대한 응답 또한 어머니가 많았기 때문에 기존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애정적 결속이 더 높고 더 가깝게 느끼는 만큼

그림책을 통한 가족 수업의 효과도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두드러졌던 것으로 사료된다.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와 가족 관련 단원에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중학교 기술·가정 가족 관련 단원에서 가족 형태와 가족관계, 가족갈등,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 상실에 관한 5가지 주제의 그림책을 선정하고 스토리텔링 요소와 기법을 적용한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교수·학습 과정을 개발하였다. 연구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의 A중학교와 B중학교 남녀학생 194명으로,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적용하고 학생들의 사전·사후 검사를 통하여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에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교수·학습 과정안은 중·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에서 관계와 안전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가족 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주제 다섯 가지를 선정하였다. 가족 형태와 가족관계에 관한 '무지개 가족', 가족갈등에 관한 '따로따로 행복하게', 성폭력에 관한 '나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할 거예요', 가정폭력에 관한 '앵그리맨', 가족 상실에 관한 '무릎 딱지'의 하위 주제로 총 5차시를 개발하였다.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을 위해 스토리텔링의 지식 차원의 가족 주제와 연결되는 그림책 11권을 선정하여 이를 교수·학습 내용으로 반영하고, 스토리텔링의 방법 차원으로 페르소나, 감정입입, 비유, 플롯, 심미적 경험, 시간성의 여섯 가지 스토리텔링 요소를 기법으로 활용하여 도입-전개-집중-정리-확장의 차시별 스토리텔링 수업 과정으로 전개하였다.

둘째, 교수·학습 과정안을 수업에 적용하고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에 미친 효과를 평가하였다.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서 사전·사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회복탄력성 정도는 수업 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회복탄력성의 거의 모든 하위 영역에 수업의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긍정성 영역에서 수업 후 가장 큰 증가를 보였고, 하위요인 중 생활만족도와 자아낙관성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성 영역의 하위요인 중 자아확장력에서는 수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사전·사후 차이 분석 결과 모든 영역에서 수업의 효과가 나타났고,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애정적 결속 정도가 더 증가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 및 결과에서 나타난 몇 가지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학습 과정안에 제시된 그림책은 교과의 가족 내용을 충실히 담고 있고, 스토리텔링 요소를 교수·학습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법을 활동별로 제시하여 가족 단위 수업에서의 현장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5차시의 가족 주제 중 3차시와 4차시에 해당하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주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내용으로 이제 수업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기술·가정 2교과서 내용상 개발한 교수·

학습 과정안의 시기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5차시에 해당하는 가족 상실 주제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가족 내용으로 중학교 수준에서 포함시켜 예방과 치유의 내용이 함께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기술·가정 교과의 자리매김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방 교육으로만 끝날 수 있는 가족 내용을 중학교 수준에서 예방과 치유의 내용을 연계하여 함께 다룸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목표로 하는 교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 가족, 사회로 확대되어 가면서 '관계'와 '안전' 핵심개념이 나선형적 구조를 이루는 초, 중, 고 교육과정에서 가족 문제와 관련한 교과 내용에서 추구하는 실제 예방 교육이 실현된다면 예방과 치유의 개념을 함께 다루어 중학교 수준에서 선제적이면서 보편적인 교육으로 우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수업 적용 결과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증가하여 수업의 효과가 나타났다. 스토리텔링의 요소 중 매 차시 적용되었던 스토리에 관련된 요소인 플롯은 학습자로 하여금 내용의 이해와 기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극적 효과를 가미하여 학습자가 새로운 내용이나 어려운 학습 내용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상상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 내용에 대한 친근함을 형성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의 요소와 기법이 적용된 가족 수업이 어렵고 힘든 수업 주제가 아니라 그림책 속 가족 내용으로 접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반복하여 공유하며 스토리텔링 수업에 대한 흥미로 이어져 청소년 자신의 회복탄력성에서 통제성과 긍정성에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업 전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사회성 영역 하위요소 중 자아확장력은 사전, 사후검사에서 친구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된 측정 문항을 사용하여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인 자아확장력의 의미가 '다른 사람'이 가족으로 생각될 수 있는 문항으로 바꾸어 측정한다면 수업 후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회복탄력성의 하위 영역 중 긍정성의 향상은 통제성과 사회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긍정적 정서로 스스로 행복해짐으로써 자기통제력을 높이고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줌으로써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게 되므로,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수업이 긍정성의 강화를 통해 사회성의 향상을 이끌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정적 결속 정도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수업의 효과도 부모 모두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연구 대상자의 기존 애정적 결속 정도가 더 높은 상대가 어머니로, 가족에 관한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스토리텔링 수업에서 상대에 대한 더 많은 생각과 이해로 관계향상을 가져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중학교 기술·가정 가족 단원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용 체계 중 교사의 요구도가 높은 주제 다섯 가지를 선택하다 보니, 교육과정 내용 체계상 연속되지 않은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이 현장에서 연속된 수업으로 적극 활용되어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가족 생활 모든 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그림책 선정이 필요하며, 교사가 가족 주제별로 선택하여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재교구와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연계되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 대상의 수가 적고 한 지역에서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그림책 수업의 대상을 다양하게 확장하고 교과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생활 내용 체계와 연계하여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무선험당표집을 통한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수업의 효과를 살펴볼지 못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세종특별자치시의 특정 중학교에서 수업을 실시한 후 그 학생들의 변화를 살펴본 단일집단 전후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 따른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설계가 가지는 제한점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에서의 향상 정도가 수업의 순수 효과만은 아닐 것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의 비교를 통한 공분산분석(ANCOVA) 및 추후검사를 통해 반복분산분석( $r$ ANOVA) 등으로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가족 단원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과 이를 현장에 적용하여 청소년 개인수준과 가족수준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시기에 많은 교사가 활용하여 기술·가정 교과의 가족 수

업이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으로 교사와 학생 모두 즐거운 수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Choi, S. Y., & Park, Y. K. (2017). A research on the effects of art therapy program on the recovery of resilience of a young sexual offender.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13*(1), 31-56.
- Chu, B. W. (2014). Teaching methods for promoting adolescents' resilience in moral education. *Journal of Ethics Education Research, 34*, 83-112.
- Gu, H. J. (2010). *A study on the construction and effect of a resilience improving program using picture books with young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H. N., & Chi, S. A. (2015). A study on development and effects of the empathy program through dramatic play for young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35*(6), 5-31.
- Kang, S. J. (2012). *The effects of storytelling techniques in the sex education on healthy sexual value of Middle school students: Focused on the contents of unit of 'understanding of adolescents' in technology·home economics textbook in middle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Kim, E. J. (2011). The instructional design using storytelling in home economics educa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3*(1), 143-157.
- Kim, E. S. (2017). *A study on the effects of bibliotherapy program using picture books on school adaptation of maladjusted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Gyeonggi, Korea.
- Kim, I. H. (2015). The influences of the youth' empathy and resilience on violent attitudes and problematic behaviors in school sports clubs particip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 23-48.



- Kim, J. H. (2011). *Resilience*. Gyeonggi: Wisdomhouse.
- Kim, J. S. (2014). *The effects of empathy education program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lower grades through storytelling techniqu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Kim, K. T. (2014). A theoretical linkages of resilience to overcome the negative psychology of learners in art activiti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1), 151-177.
- Kim, S. M. (2013). *The analysis of family types and family relationships in children's picture boo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Y. (2003). *The analysis of family types and family relationships in picture books for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Lee, B. S., Kang, Y. H., & Nam, Y. S. (2010). The effects of reading education program on the student's empathic ability and peer receptive attitude to children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Asia-Pacific Special Education*, 11(2), 195-214.
- Lee, H. (2008). *The analysis of diverse family types an relationships and environment in domestic and overseas children's picture boo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S., & Kim, T. Y. (2014). Korean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learning motivation, demotivation, resilience, and English proficiency. *Journal of Foreign Studies*, 29, 11-41.
- Lee, J. M. (2005). *The study on microsystem affecting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in transition: Focused on family and school environm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nam University, Daejeon, Korea.
- Lee, K. H. (2014).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and communication perceived by adolescents on social problem solv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chunhyang University, Chungnam, Korea.
- Ministry of Education. (2015). *The practical arts(technology·home economics) and informatics curriculum*. Proclam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Notice #2015-74 [Annex 10]. Seoul: Author.
- Oh, E. S. (2015). *The effect of solution focused self-reflection program on the self-reflection and the resilience of you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onggi University, Gyeonggi, Korea.
- Park, J. Y., & Moon, S. Y. (2016). The effects of song-focused music therapy on the resilience of adolescents in low-income families. *Korean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Therapy*, 8(1), 1-50.
- Park, M. J. (2014). *The effects of reading picture books of relationship formation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s ego-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University, Chungmam, Korea.
- Park, S. H. (2012). *Exploration of instructional design principles and a model based on storytell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Y. J. (2010). The effect of educational activity involving family related picture books on the children's understanding of family. *Journal of Kore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2(8), 171-194.
- Park, Y. M. (2013). *Development of a school violence preven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the lower grades using picture boo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Rho, J. H., & Kim, M. J. (2013). The effects of classroom activities involving storybooks on different types of families on young children's understanding of family.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 Research*, 14(4), 207-232.
- Roberts, R. E. L., & Bengtson, V. L. (1993). Relationships with parents,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young adulthood: A further examination of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6, 263-277.
- Seo, H., Seon, H. A., & Park, M. J. (2012). Using picture book activities to develop theory of mind empathy and interpersonal cognitive problem solving abilitie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34(5), 55-84.
- Shin, S. N. (2007). *Analysis of the family image in korean creative picture book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Shin, S. N., & Cho, H. S. (2009). Picture books about no-traditional families. *Journal of Ecological Infant Education Research*, 8(3), 51-75.
- Shin, W. Y., Choi, M. A., & Kim, J. H. (2009). The effects of the three resilience factors on problematic online game uses.

-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26(3), 43-81.
- Shin, W. Y., Kim, M. G., & Kim, J. H. (2009).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Journal of Korean Youth Research*, 20(4), 105-131.
- Song, S. E. (2005). *Effects of story telling after reading picture books on young children's language ability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gshin University, Seoul, Korea.
- Suh, K. H. (2016). Academic stresses, subjective well-being, and reeling of happiness in adolescence: Focused on roles of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 137-157.
- Werner, E. E., & Smith, R. S. (1982). *Vulnerable but invincible: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ew York: McGraw-Hill.
- Yeo, J. Y. (2012). The effect of music therapy activities on resilience of internet addicted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14(1), 21-40.
- Yeo, J. Y., & Park, T. Y. (2013). A study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The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 121-145.
- Yoon, S. H. (2018). *Development of practical problem focused programs and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s for healing education in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Yu, H. S. (2016). *A case study on using picture-books counseling for improving the school resilience of elementary-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Korea.
- Yu, S. H. (2014). *The effect of children's happiness program utilizing picture books on their happiness and self-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와 가족 단원에서 그림책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수업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가족 형태, 가족관계, 가족갈등,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 상실에 관한 5가지 주제의 그림책을 선정하고 스토리텔링 요소와 기법을 적용한 '그림책으로 만나는 가족' 교수·학습 과정을 개발하였다. 남녀 중학생 194명을 대상으로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적용하고, 사전·사후 검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회복탄력성 정도는 수업 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나, 사회성 영역의 하위요인 중 자아확장력에서는 수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서는 모든 영역에서 수업의 효과가 나타났고,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애정적 결속 정도가 더 증가하였다. 회복탄력성의 향상과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목표로 하는 기술·가정 교과와 가족 단원에서 그림책을 통한 스토리텔링 수업은 자신의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잠재적인 힘을 청소년 스스로 길러주게 하여 청소년 가정의 가족과의 관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논문접수일자: 2020년 2월 29일, 논문심사일자: 2020년 3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20년 3월 29일